

징역
15
년
에
항
소
포
기

 김 동 길

*김동길님은 연세대학교 사학과 교수로서 1974년 민청학련 사건의 배후조종자로 구속되어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당시 김동길님은 1십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고 그 이튿날 바로 항소를 포기하여 큰 충격을 주었다. 석방 후에는 해직, 복직을 번갈아 하다가 연세대학교 부총장으로 퇴임하고, 14대 국회의원을 지냈다.

‘잠깐만’이 3백일이 될 줄이야

4월 하순으로 접어든 봄의 향긋한 입김이 아직 하늘과 땅 사이에 감돌고 있었다. 9시가 가까운 명동의 변화한 밤거리도 결코 예외일 수는 없었던 모양이다.

성당 있는 곳을 향해 그 모퉁이를 막 돌아서려 할 때에, “잠깐만!” 하며 다가서는 그가 수사기관원이라는 사실을 나는 육감으로 알아차릴 수 있었다.

그런 불문율이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으나 대개 연행하러 가는 바로 그 기관원에게 조사받는 일은 드물고, 취조하는 수사관의 얼굴은 초면인 경우가 많다. 분업의 원칙이 여기에도 적용되는지. 그런데, 한 가지 이상한 일은 “갑시다”하는 사람의 표정에는 어딘지 고행하는 수도자의 모습이 엿보인다는 것이다. 집에서나 길에서나 사람을 수없이 잡아다 넘기는 것을 전공하는 그들이런만, 어김없이 그 얼굴은 굳어져 있거나 무슨 말못할 괴로움으로 일그러져 있다.

그 긴장하게 생긴 젊은이의 지시를 따라 차에 올라 결국 도착한 곳은 서빙고 역전의 보안사 건물—일명 ‘서빙고호텔’이라고 불리우는 장안의 명소! 내가 왜 또 붙잡혀 가는가? 대성빌딩 강당에서 오늘 저녁에 한 강연 내용이 말쑥이 되었을까? 별 대단한 말 한 것도 없는데, 하도 답답한 세상이라 무슨 시원한, 백성들을 앞에 놓고 웃기는 이야기나 늘어놓았을 뿐이었는데!

그러면 또 무슨 다른 범행사실이라도 있었는가? 옳지! 며칠

전 동양 TV의 <오라 오라 오라>리는 젊은이의 프로에 손님으로
나가서 읽은 즉흥 자작시 한 수가 문제가 되었을까?

피지 못하면 꽃이 아니니 그대여,
잔인한 4월의 하늘 아래 찬란하게 피어라

날지 못하면 독수리 아니니 그대여,
저 푸른 하늘가에 마음껏 날개를 펴라

죽지 못하면 젊음이 아니니 그대여,
십자가를 지고 끌고다로 가라

이 어둠 밝히는 햇불이어라
가난한 이 겨레의 양심이어라

이 시가 젊은이들을 선동하여 데모를 하도록 자극한다고 당국자에 의하여 풀이가 되어서 나는 지금 진행되는 중일까? 도시 알 수 없는 일. 작년 1월 8일부터 대통령 긴급조치 1호가 떨어진 후에는 개헌에 대한 논의를 일단 중지하고 사태를 관망하고 있었던 것이 사실이니만치 공개된 장소에서 유신헌법을 '비방'했을 리는 만무했다.

4월 3일 폭발한 이른바 긴급조치 제 4탄은 '데모 선동'에 최고 사형을 불사하리라는 집권자의 결의의 표명이니 선불리 학생을 자극했을 리도 만무하다.

긴급조치 발동 이후에도 부득이 강연을 해야 할 일은 여러 번 있었다(1973년에서 1974년 4월 투옥되기까지 한 해 동안에만도 대학에서 강의하는 것 외에 대소집회에서 강연한 회수가 무려 1백회—사실은 150회의 강연 청탁을 받았으나 그 중 50회는 당국에 의하여 중지되었다). 그러나 사실 나는 한번도 정부를 비방하거나 유신을 악평하거나 개헌을 내세우거나 한 일은 없었던 것이다.

나는 오히려 이렇게 말하였다.

“유신체제에 도전하면 15년 징역에 처한다는 정부 당국자의 명백한 의사표시와 태도표명은 도리어 이 나라 민주운동에 크게 도움이 될 것입니다. 권력자의 마음에 안 맞는 사람들은 꼬리표를 붙여 두었다가 어두운 골목에서, 혹은 칙칙한 지하실에서 침대 각목으로 두들겨 패서 마침내 비명에 세상을 하직하게 만드니 보다는, 유신체제에 도전하는 사람의 종착역은 안양이고, 정착시간은 15분이 아니라 15년이라고 법적으로 명시한 것은 잘한 일이라고 믿습니다. 우리는 앞으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 아무런 두려움없이 각자 자유의사에 따라 행동을 취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나는 오히려 1·8긴급조치를 이 나라 민주역사의 진일보라고 풀이합니다.”

긴급조치 4호가 공포된 직후에 CBS방송국이 마련한 마틴 루터 킹 목사 서거 추모강연회에서는 다음과 같은 발언을 하였다.

“여러분, 왜 이렇게 풀이 죽고 기가 죽어서 이 자리에 나오셨나요? 어제 발표된 긴급조치 4호로 사형의 가능성이 생겨서, 혹시 목숨을 잃게 되거나 앓을까 하는 근심 때문인가요? 나도 유

언이나 한마디 해두고 싶은 심정입니다. 그러나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던데, 낙담·낙심은 금물이 아니겠습니까? 용기를 가집시다.”

나는 본시 조국의 민주화운동은 앞으로 1백년을 내다봐야 하는 것이라고 믿어온 터이라, 소위 긴급조치라는 강권 발동에 자극되어 초조해 하거나 조급해지는 것은 잘못이라고 확신하고 있었기 때문에, 우선 과격한 언동은 일체 피하고 당분간 조용히 있어 흠물이 가라앉기만을 기다리리라 마음먹고 있었던 것이다.

그런 내가 긴급조치를 위반했을 리는 만무하지 않은가?

서빙고 보안사 건물 2층의 VIP실로 안내되어 들어서면서 ‘잠깐만’이 결코 ‘잠깐만’이 되지 않으리라는 묘한 예감에 사로잡혔다. 아나나 다를까. 나는 그 시간 이후 꼬박 3백일을 옥중에 매인 몸으로 ‘철창’ 신세를 면치 못했다. 나는 법을 지키고자 항상 노력하는 이른바 ‘지각있는 인사’ 중의 한 사람으로 자처하고 있었는데!

수사 전에 이미 유죄로 확정?

내 죄상이라고 적어온 내용은 모두가 다 학생들의 자백이라는 형식으로 꾸며져 있었다. 내가 잘 아는 학생들의 이름이 수사관의 입을 통해 공범으로 지적됐을 때, 나는 우선 마음을 놓을 수 있었다.

나는 그 젊은이들을 사랑하고 믿는 터이었으므로, 그 순진한 학생들이 악의를 가지고 음모를 조작하여 나를 거기에 관련시켰

을 리는 없으리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학생들이라면 안심할 수 있다. 내가 이름도 들어본 일 없는 정보원이나 간첩들의 자백으로 여기까지 끌려 왔다면 모르거니와, 내가 가르치던 학생들이 이번 사건의 핵심이라면 아무 염려도 없다는 생각 때문이었다.

그런데 그들이 자백했다는 내 범죄내용은 너무나도 사실과 거리가 먼 것이었다. 요약하면, 첫째 내가 서울 문리대 데모가 있던 다음 날, 즉 1973년 10월 3일, 20명 가까운 남녀 대학생을 거느리고 천마산에 갔는데, 그 등산의 중요한 목적은 학생들에게 데모를 선동하는데 있었다는 것이다.

둘째는, 긴급조치가 선포된 후 내 집으로 찾아온 김학민, 김영준 두 학생에게, 내가 “박정권은 이제 한계점에 도달했다. 삼선 개헌으로 돌아오지 못할 다리를 건너갔고, 10월유신으로 그 다리마저 끊어버렸다. 개헌청원 서명운동은 그 다리를 다시 놓아보려던 우리들의 노력이었건만, 긴급조치로 말미암아 무너지고 말았으니 자기의 묘혈을 스스로 파는 것이나 다름이 없다.” 이런 말로 나는 10월유신을 비방했다는 것이다.

세째로, 그들 학생 중 김학민이 “선생님, 우리는 이제 전국적인 대규모의 데모를 일으켜 우선 정국을 어지럽게 해 놓고, 화염병을 만들어 서울 시내에 불을 질러, 그 혼란을 틈타 정부를 전복시킬 계획입니다” 하였을 때, 교수인 내가 그를 격려하여 말하기를 “훌륭한 생각이다. 15년 징역을 각오한다면 못할 일이 무엇이 있겠는가!”라고 대답함으로써 학생들에게 내란을 선동했다는 것이다.

천마산에 오른 것은 입대하는 학생 두 사람을 위해 내가 마

련한 등산 모임에 불과했고, 그 산이 생각했던 것보다 멀고 험하였기 때문에, 사실은 날이 저물어 늦게 하산하는 바람에 여간 고생한 것이 아니었으며, 도중에 데모를 계획한다는 것은 상상도 못할 일이었다. 그런데 그 모임이 데모의 전략을 검토하기 위한 모임이었다니, 그런 역지가 어디 있겠는가?

그렇다면 내가 평소에 할 만한 말과 절대 하지 않을 말을 분간하여 그것을 기준으로 학생들의 자백을 검토해볼 도리밖에 없는데, 만일 그 학생들의 입에서 “화염병을 만들어 서울거리에 불을 지르겠다”는 말을 듣고도 내가 그 충격적인 폭언을 기억하지 못하고 있을 리는 만무한다.

긴급조치 후에는 특히 말을 조심하며, 나라의 법을 우선 존중하는 것이 대학교수된 사람의 도리라고 믿었는데, 아무리 한두 사람의 학생들 앞에서이지만 법에 위배되는 과격한 말을 주고 받았을 리는 없다.

그렇다면 학생들의 소위 자백이라는 것이 자의에 의한 자백이 아니라 강요에 못이겨 시인한 거짓된 내용에 불과하다는 사실에 대한 심증을 얻은 셈이다.

밤은 깊어가는데 나는 두 사람의 수사관 앞에 앉아 상황을 판단을 정확하게, 빠르게 해야겠다는 다급한 생각이 드는 동시에, 여러 날 밤잠을 못 자서 눈이 충혈되고 얼굴빛도 건강을 잃은 수사관이라는 이름의 내 동족에 대한 측은한 느낌마저 생기게 되었다.

“무엇을 원하십니까?”

“이대로 시인만 해주시면 됩니다.”



▲ 1975년 2월 15일, 석방되는 김동길 교수

내가 빙그레 웃었을 때, 그들도 함께 웃어주었다.

“좋습니다. 나는 이미 안양 가기로 결심한 사람입니다.”

내 입에서 이 말이 떨어질 때, 일종 어색함을 감추지 못하면서 그렇게도 고마워하던 두 선량한 시민의 밝은 표정이 지금도 눈에 선하다. 나를 미워할 하등의 근거도 없는 그들. 상부의 지시를 받아 어쩔 수 없이 이 일을 하기는 해야 하는 그들.

내가 과연 긴급조치를 위반했느냐 안 했느냐를 밝히는 것이 그들의 임무가 아니고, 내가 긴급조치를 위반한 것으로 만들어 올리는 것이 그들의 임무임을 깨달은 후에야 내가 주저할 일이 무엇이 있겠는가!

“마음대로 하시오.”

피아골 골짜기에서도 인정은 아름다운 것. 내 일만이라도 어떻게 바로잡아 보려고 무척 애를 쓰면서, ‘구속 해제’를 건의해

놓고 5일간이나 기다리며 백방으로 노력해 준 그 정성에 나는 무엇으로 보답할 수 있을 것인가? 고마운 사람들! 잊을 수 없는 고마운 사람들!

최후진술에서 울분 토로

검찰에서 조서를 꾸밀 때 사실을 사실대로 밝힐 기회가 있다고 알려준 사람이 있었다. 내가 말단 수사관에게는 동정적이었으나, 높은 벼슬자리에 앉은 검찰관에게까지 동정적일 까닭은 없다는 생각이었다. 나는 그를 만나게 되는 기회를 고대하고 있었고, 그는 드디어 5월 하순 어느날, 서울구치소의 검사실로 나를 불러 내 조서작성에 착수하였다.

나는 한치도 양보하지 아니하였다. 부르는 대로 받아 적었다는 소위 자필진술서에는 엄연히 내 무인이 찍혀 있는데, 그런 진술서의 내용을 어떻게 부인할 수 있느냐는 식으로 그는 공세를 취하였으나, 나의 범행 사실을 자백하였다는 학생들과의 대질신문을 거치지 않고는 어떤 사실도 나는 시인할 수 없다고 대들어, 피의자인 내 언성이 번번이 높아져 그에게 미안한 감도 없지 않았다.

그런데 그 검찰관은 비교적 원만한 사람으로 그 검찰조서에서만은 내가 시인한 이외의 것을 기록하지 않았고, 피차 화기에 애한 가운데 작별인사를 나누는 것이 사실이었다.

그러고는 두달 동안 아무 소식이 없었다. 기소를 포기했는지도 모른다는 생각도 들었다. 그러던 어느날 돌연히 나타난 그 검

찰관의 태도는 지난날과 아주 판판임을 즉각적으로 느낄 수 있었다.

‘기소를 하기로 방침이 결정된 모양이구나.’

나는 속으로 이렇게 뇌까리며 임전태세를 갖추고 있었는데, 그는 내 주장의 잘못이나 모순을 지적하려는 것이 아니라, 내가 목청을 돋구어 소리를 높이는 데 대하여 어째서 검찰관인 나에게 소리를 지르느냐면서 격분한 듯한 눈치였다. 그러면서도 아니라고 내가 부인한 부분은 조서에서 다 삭제해 줄만한 아량을 그는 지니고 있었다.

그런 일이 있는 후 얼마 안 가서 곧 공소장이 날아오고, 나는 수갑을 차고 오랏줄로 상반신을 푹푹 묶인 채 소위 보통군법회의라는 곳으로 끌려 다니는 처량한 신세가 되고 말았다.

사실심리라는 과정에서 나는 공소내용의 8할을 부인하였다. 기막힌 사실은, 검찰이 검찰조서는 손톱만치도 참작하지 않고 오로지 보안사에서 넘어온 서류와 이른바 부르는 대로 적은 그 자필진술서만을 문제삼았다는 것이다.

그래서 다시금 열변을 토해가며 세상에 이럴 수가 있느냐고 대들었고, 그 날 재판정에 나왔던 금테 두른 모자의 구치소 계장 한 사람은, “그런 식으로 하시면 무죄로 석방되지겠어요. 기소사실을 전부 뒤집었으니” 하면서 결과가 희망적으로 내다보인다는 말투로 나를 위로하기도 했다.

그러나 모르는 소리!

8월 중순에 가서야 구형공판이 열렸다. 나뿐만 아니라 그 날 그 시간 공판정에 나왔던 사람 가운데 내가 유죄라고 믿은 사람

은 한 사람도 없었을 것이다. 인간이 양심의 원점으로 되돌아갈 수만 있다면, 심지어 재판장조차도 내가 죄가 있다고는 생각지 않았으리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징역 15년'. 이런 '불의의 법정' 위에 오오 하나님이지여, 어찌하여 불과 유향의 무서운 심판을 내리지 아니하시나이까.

최후 진술을 하는 시간이 되었다. 나는 재판장의 얼굴을 뚫어져라 쳐다보면서 다음과 같은 말로써 내 울분을 토로하였다.

“현명하신 재판장이시여, 본피고인은 직업으로 말하면 대학 교수요, 정치적 이념에 있어서는 자유민주주의를 신봉하고, 종교에 있어서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지난번 법정에서 사실을 심리하는 과정에, 본피고인이 열렬하게 공소내용에 대해서 항변한 까닭은 안양교도소에 가고 싶지 않아서 그렇게 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저는 첫째, 내 사랑하는 조국이 죄없는 사람을 정죄하여 감옥으로 보내서는 안 된다고 믿었기 때문에 사실을 사실대로 밝혀 두고자 하는 마음이 간절했을 뿐이며, 둘째로 우리가 '조상의 빛난 얼굴 오늘에 되살려'야 한다고 국민교육헌장에 명기해 두고도, 군사부일체라는 우리의 전통 관념을 완전히 무시한 채, 제자의 입으로 허위사실의 고백을 강요하여 스승을 감옥으로 보내게 함이 부도덕하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뿐 아니라, 오늘 이 자리에 서서 15년 구형을 받은 김교수라는 사람이 그래도 대한민국의 학원사회에서는 어느 정도 알려진 인물인데, 그가 국법을 어기고 감옥으로 간다면, 그 일이 반드

시 학생들 사이에 좋은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못하리라고 믿었기 때문
입니다.

그러나 재판장이시여, 본피고인이 감옥에 갈 만한 이유도 충분
히 있음을 자인하는 바입니다. 이번 사건이 주로 학생들의 움
직임으로 야기된 사태라고 한다면, 대한민국의 교수의 한 사람으
로 본인이 이 일에 책임의 일단을 지게 된다는 것은 크게 영광스
러운 일이라고 믿어지며, 이 처사에 아무런 불평도 있을 수 없
는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본 피고인은 헤겔의 말대로, '역사는 하나님의
드라마'라고 믿는 터이므로, 이번 연극에 있어 저더러 이 파트를
맡으라고 하는 것을 거절하거나 회피할 정도로 비겁한 사람이 아
니라는 사실을 밝혀두고 싶습니다.

이번 일을 꼼꼼히 생각해 보니, 본피고인은 지성인의 한 사
람으로 이 긴급조치를 준수하려고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범법자로 낙인을 찍히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법은 아무리 지키려 하여도 지킬 수 없는 법이라고 할 수밖에 없
습니다. 풀어주시어 밖에 나가도 또다시 붙잡혀 올 것이 명백한
터에 어찌 무죄석방으로 이 자리를 면하게 되기만을 바라겠습니
까? 들락날락하지 않고 오히려 그냥 눌러 있는 것이 본 피고인의
원하는 바라고 하겠습니다.

재판장이시여, 한 시대의 지식인의 사명은 권력을 비판하는
데 있다고 믿습니다. 과거에도 이를 사명으로 알고 권력의 잘못
을 비판하였습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권력을
비판하는 지식인의 소임을 다하려고 합니다.

재판장이시여, 이 몸이 형무소 안에 있으나 형무소 밖에 있으나 조국을 사랑하는 마음에는 무삼 변함이 있사오리까! 그러므로 무슨 죄를 주셔도 불평없이 감수할 것이니 염려마시기를 바라오며, 이 모든 사실을 참작하신 연후에 현명한 판단이 있으리라 믿으며, 이로써 최후진술을 끝내고자 합니다.”

법정 안은 숙연하였다. 듣지도 않은 말, 하지도 않은 말 때문에 15년 구형을 받다니! 내 나라는 도대체 어디를 향해 가는 것일까? 아아 호소할 곳 없는 답답한 심정이여!

떳떳하게 살리라

선고공판에서도 또다시 15년. 예상했던 꼭 그대로였으므로 지극히 답답한 심정이었다. 나는 스페인의 프랑코를 생각하여 보았다. 그의 정권은 이미 30년 이상 훌륭하게 유지되고 있지 않은가? 침침한 감방 속에서 환갑을 맞이하고, 꼬부라진 노인이 다 되어 쓸쓸히 죽어가는 나 자신의 가련한 모습을 상상하여 보았다. 인생의 말로가 이렇게 되는 것일까?

그러나 자세를 굽히고 오래 사느니보다는 떳떳하게 살다가 떳떳하게 가는 것이 사람답고 또 기독교 신자답지 않겠는가? 이 땅의 역사를 부끄러운 역사라고 외면하지만, 그래도 ‘님 향한 일편단심이야 가실 줄이 있으랴’고 외치고 간 정몽주가 있고, ‘백운이 만견곤할제 독야청청하리라’고 읊은 성삼문이 있는 이 역사를 부끄럽게만 여겨서는 안될 일이다. 안중근, 윤봉길의 타는 듯한

기계를 다 어디 두고 부끄럽고 구차하게 생을 연장하다니!

역사의 이 현실을 뚫고 나가자! 바울의 고난을 생각하자. 40에 하나 감한 때를 다섯번 맞고, 태장에 세번 터지고, 한번 들에 맞아 다 죽게 되었고, 세번 파선하여 일주야를 물의 깊음에서 헤매다 구사일생으로 살아났고, 여러번 여행에 말못할 위험을 겪었으며, 잠 못자고 주리고 목마르고 굶고 춥고 헐벗는 시련을 끝내 이겨낸 바울을 생각하자!

그리스도가 지신 십자가는 누구를 위함인가? 본회퍼의 말대로 “그리스도를 부르심은 그로 하여금 와서 죽으라 하심이라.” 그리스도를 따르다는 것은 죽음의 길을 스스로 택하여 죽으려 간다는 말이나 다름이 없다. 이 거래를 위해 나도 십자가를 지자!

나는 그래서 항소를 포기하기로 결심하였다. 또 다시 수정을 차고 오랏줄에 묶여 이리저리 끌려 다니며 구차히 살아보겠다고 발버둥치느니보다는, 이 ‘불의한 공사’에 종지부를 찍어버리는 것이 오히려 민족 앞에 떳떳한 자세라고 믿어졌다.

항소포기를 외치는 나에게 담당 교도관은 당황한 표정을 지으며 재고해 볼 것을 간청하였다. 15년이 결코 짧은 세월이 아니라면서, 나의 무모한 결심을 나무라는 듯 하였다. 1심언도 15년에 항소를 포기한 사람이 있다는 말을 일찌기 들어보지 못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나도 고집이 있는 사람, 죽는 한이 있어도 굽히지는 않으리라.

15년의 형기를 3백일로 끝내고 다시 세상 빛을 보게 되니 여러가지 생각이 가슴 속을 오고 간다. 나는 인간의 역사에는 절대

자의 섭리의 손길이 작용하고 있다고 믿는 그런 계통의 역사철학을 존중하는 사학도의 한 사람이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오늘의 현실의 모순과 갈등과 고뇌와 부조리를 해결하는 가장 소중한 열쇠가 감추어져 있다고 믿는 사람이다.

그런 생각들을 진지하게 추구해 나갈 수 있었던 옥중의 10개월이 나에게 있어서는 다시 없이 귀중한 체험이었다. 부자유 속에 자유가 있음을 깨달았고, 양심의 자유만 있으면 몸은 비록 옥중에 있어도 우리 입에서 시와 찬미와 노래가 떠나지 않는다는 불변의 진리도 터득하였다. 그 괴로움 속에서도 삶은 한없이 아름답고 향기로운 것.

나는 내가 무죄임을 잘 알고 있다. 나쁜 아니라 나를 취조한 수사관은 물론, 검찰관도 서기도 다 이 사실을 알고 있었으리라고 믿는다. 심지어 판단관, 법무관, 재판장에 이르기까지 나의 죄없음을 밝히 알고 있으리라 확신하는 바이다.

지옥의 사탄도 내 말의 진실함을 믿을 수밖에 없다. 왜 '나는 결백하다' 하는 내 주장이 그대로 사실임을 내 양심이 증거하기 때문이다.

감옥에서 여러 달 동안 나와 함께 먹고 마시고 잠자리를 같이 하면서 지내온 김병곤, 김정길 두 젊은 학생들이 깨끗한 양심의 소유자인 것을 나는 믿는다. 그들이 고문을 당했다고 하는 말을 나는 믿는다. 그들이 고문에 못이겨 허위자백을 할 수밖에 없었다고 나는 믿는다.

민청학련이라는 가공할 단체가 사전에 조직된 일이 없고, 다만 데모를 위해 임시로 붙였던 '어리석은' 이름에 불과하다는 그

들의 주장을 나는 또한 믿는다. 인혁당 관련의 진상을 밝히려는 민중의 애절한 호소에도 상당한 근거가 있다는 사실을 나는 믿는다.

어떤 개인도, 어떤 집단도 역사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고 나는 믿는다.

역사의 심판은 하나님의 심판이다. 나는 하나님의 심판이 반드시 있을 것을 믿고 또 믿고 또 믿는다. 이 믿음이 있어서 나는 죽는 날까지 떳떳하게 살 수 있음을 또한 믿는다.